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2. 3.(일) 11:00 < 12.4.(월) 조간 > 배포 2023. 12. 3.(일)

원전 유망 협력국에 수주 활동 전개

- 2차관, 유럽연합(EU) 에너지부 총국장과 만나, 한-유럽연합(EU) 에너지부 대화체 신설 합의
- 아랍에미리트(UAE), 루마니아 고위급 면담 통해 원전 수주 성과 창출 가능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COP28 계기에 강경성 2차관이 UAE 두바이에서 12.1(금), 2(토) 이틀에 걸쳐 원전 유망 협력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CFE 이니셔티브 지지를 적극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강경성 2차관은 12.1.(금) 디테 쥴 요르겐센 EU 에너지 총국장을 만나 한국의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CCUS 등 무탄소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EU측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중립적인 관점에서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리측의 CFE 이니셔티브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내년 초 「한-EU 에너지 대화체」를 신설하고, 에너지 안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CFE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강 차관은 루마니아 에너지부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 장관을 만나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발판으로 하여 양국간 원전 협력이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루마니아는 'on-time, on-budget' 시공으로 유명한 한국이 체르나보다 3, 4호기 건설재개사업과 수력펌프저장시설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UAE 원자력공사 모하메드 알 하마디 CEO도 만나, 그간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신규 원전, 핵연료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 원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하였다.

강 차관은 "금번 면담은 유망 원전 수주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향후 고위급 면담 등 적극적 세일즈 활동과 동시에, 국내 원전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CF 연합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주요국들과 무탄소 에너지의 확산, 산업 분야 탈탄소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5330)
		담당자	사무관	이민석 (044-203-533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